

A-4. 초기 골결손부 형태에 따른 조직유도재생술 후의 치유 결과

윤현정*, 정철화, 김옥수, 정현주

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환된 치근면에 신생 백악질의 침착, 신생골 형성, 새로운 치주인대섬유의 삽입 등 치주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재생을 위해 조직유도재생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조직유도재생술은 특히 3벽성 또는 2벽성 골내낭, 하악 대구치의 제 2급 분지부 병변에 사용시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전체적인 골 결손부의 깊이, 골 결손부 중 3벽성인 부분의 깊이, 비흡수성 차폐막 사용시 막 제거 후 신생 육아조직의 판막으로 피개 정도, 이차 감염의 여부, 유지관리기 동안의 치태 조절 등이 있다. 술 전 방사선 사진상의 결손부 모양과 수술 후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골내낭의 경우 defect angle이 큰 경우는 차폐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치유에 도움이 되는 세포의 유주가 더 어려우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어 치유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.

이에 본 증례에서는 다양한 초기 골결손부 형태에 따른 조직유도재생술 후의 치유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.